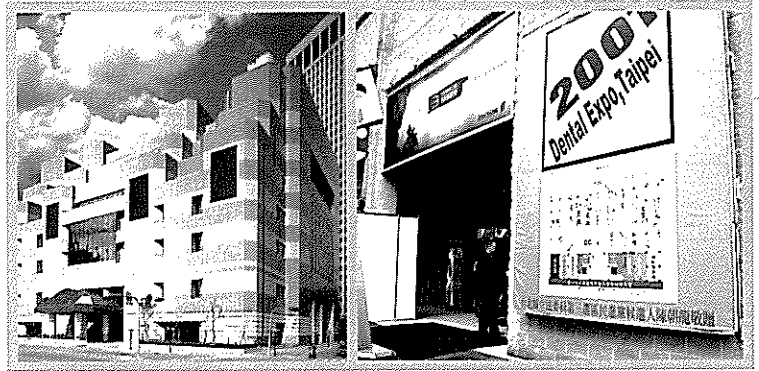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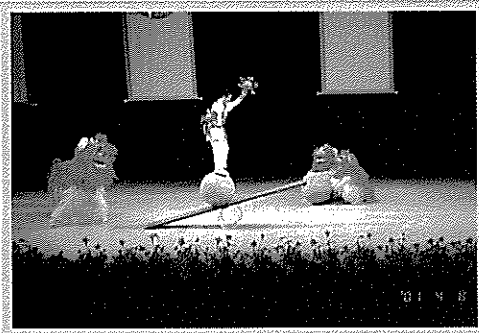
제23차 APDC 대만총회가 지난 4월 7일부터 11일 까지 5일간 타이베이에서 성공리에 개최됐다.

30여개 국가가 참여한 이번 국제대회에서 이기택 협회장이 아태연맹 차기회장으로 당선되는 쾌거를 이뤘으며 이에 따라 조행작 아태연맹 부회장과 지헌택 ICCDE 위원장 등 한국인 3명이 아태연맹 이사로서 활동하게 됐다.

대만총회에서의 각종회의들, 학술프로그램, 행사 등을 사진으로 살펴본다. <편집자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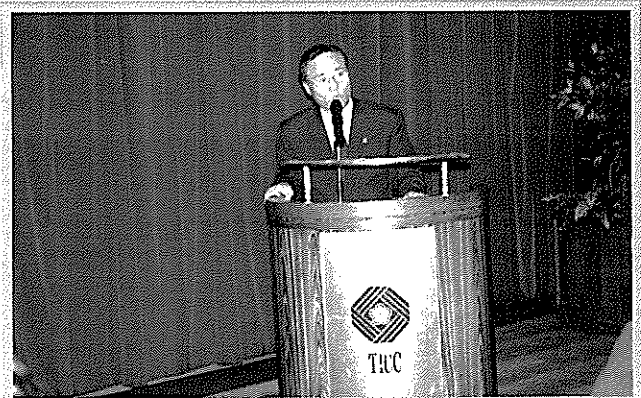
▲ 개회식과 코리안 런천, 학술프로그램이 개최된 타이베이 인터내셔널 컨벤션센터(좌)와 치과기자재 전시회가 개최된 타이베이 세계무역센터전시장(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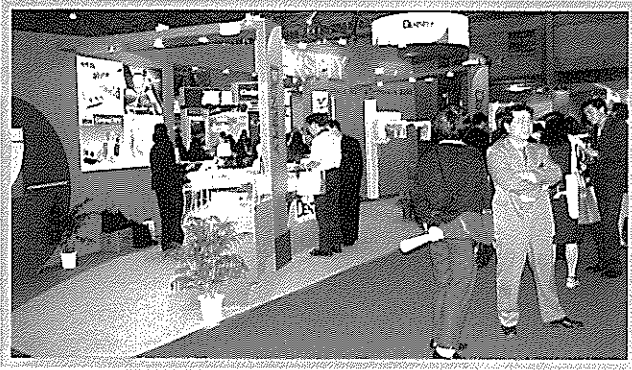
▲ APDC 대만총회, 성공리에 개최
지난 4월 8일 타이베이 인터내셔널 컨벤션센터에서 행사의 시작을 알리는 개회식이 성대하게 개최됐다. 개회식 중에는 대만전통문화를 느낄 수 있는 시지춤이 공연되기도 했다.



◀ 코리안 런천
타이베이 인터내셔널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코리안런천에서는 2002년의 APDC 서울총회를 홍보하고 각국의 적극적 참여를 독려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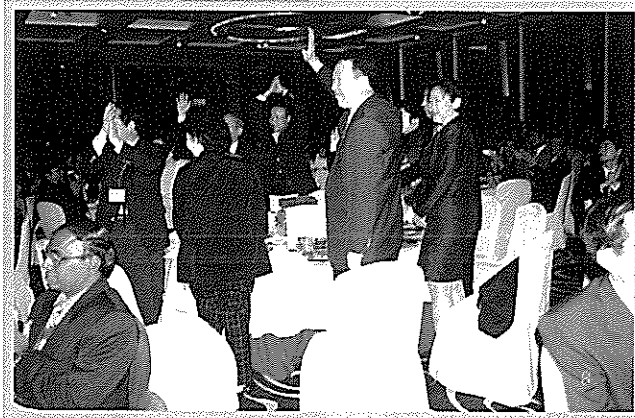


이기택 협회장, 아태연맹 차기회장으로 당선 ▶
지난 4월 11일에 개최된 대표자회의에서 이기택 협회장은 아태연맹 차기회장으로 당선됐다. 이로써 이협회장은 앞으로 3년간 아태연맹 이사로서 활동하게 된다.



▲ 치과기자재 전시회

치과기자재 전시회는 4월 7일에 개막식을 갖고 9일까지 3일간 개최됐다. 각국의 80여개 업체가 참여, 성황을 이뤘다.



환영연▶

지난 4월 8일에 개최된 환영연에서 한국을 호명하자 한국대표단이 기립해 이에 응하고 있다. 이날 환영연에서는 대만전통요리 11가지가 선택 음식의 진수를 맛볼 수 있었다.



대표자회의▶

조맹작 부회장(좌)과 지현택 ICCDE 위원장(우)이 아태연맹 이사의 자격으로서 대표자회의에 참석, 회의를 귀기울이고 있다.



◀ 다양한 학술프로그램

대회 주제인 '21세기 치과전문분야 협력의 새 지평'에 걸맞게 많은 치과의사의 관심이 되고 있는 체인치과의 경영에서부터 장애우 진료, 구강암, 교정치료에 서의 임프란트 적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내용을 다루었다.